

Jong-Deok Choi

CAPSULE INTRODUCTION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인연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최종덕 박사님이 그런 분이다. 우선 우리 둘 사이에는 겹치는 것이 많다. 첫째, 둘 다 UW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종덕 박사님은 University of Wisconsin, 나는 University of Washington - 둘 다 UW가 자기 대학의 약자라고 우기고, 다른 UW가 자기 UW의 명성을 깎아 먹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둘 다 같은 시기에 IBM TJ Watson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그 당시 최종덕 박사님은 Research Staff Member 이셨고, 나는 PostDoc 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입사일이 며칠 빨라서 IBM 군번순으로 내가 선배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다). 셋째, 현재 둘 다 플래시메모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최종덕 박사님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둘 다 고집이 세다. 소위 이야기하는 똥고집을 가졌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IBM TJ Watson 연구소 당시 같이 논문을 쓰다가 용어 선정 때문에 (more specifically data race를 쓰느냐 access anomaly를 쓰느냐) 어린애들 처럼 다투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두 논문 (한 논문은 최종덕 박사님이 첫번째 저자, 내가 두번째 저자, 그래서, 거의 최종덕 박사님 마음대로 쓰시고, 다른 한 논문은 vice versa)을 같이 쓰는 해프닝을 겪은 적도 있다.

나는 최종덕 박사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존경한다. 서로 겹치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존경한다. 최종덕 박사님은 컴파일러와 Java Virtual Machine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셨으며, 내가 알기로 현재 우리나라에 계시는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자분들 중에서 Google Scholar 인용순으로 #1으로 알고 있다 (한번 궁금하면 Google Scholar에서 Jong-Deok Choi를 쳐보면 된다). 이런 분이 삼성전자에 계시니, 앞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인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들을 기대하여도 좋을 것 같다.

민상렬, 2011년 4월